

부산지역 유통 수입 과일의 잔류농약 실태조사 연구

I 연구목적 및 필요성

- 부산지역에서 유통되는 수입 과일류의 농약 잔류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부산시민의 농산물 섭취량에 따른 위해성 평가 연구를 실시하고자 함

II 주요 연구내용

- 연구기간 및 대상
 - 기간 : 2017년 1월 ~ 2017년 12월
 - 대상 : 부산지역 대형마트, 백화점, 전통재래시장 등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 과일류 96건
- 연구방법
 - 농약 분석 항목 : GC분석농약 165종
 - 시험 방법 : 식품공전 7.1.2.2 다중농약다성분 분석법에 의한 잔류농약 분석
 - 결과 분석 : 품목별 잔류농약 모니터링 및 특성 분석, 검출농약의 위해성 평가

III 연구결과

- 총 17품목 96건 중 잔류농약이 검출된 과일은 45건(검출률 46.9 %)이었고,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잔류농약허용기준에 초과된 품목은 1건(부적합률 1.0 %)이었음
- 품목별 검출건수는 감귤류 30건 중 24건(80.0 %), 장과류 18건 중 13건(72.2 %), 열대과일류 45건 중 6건(13.3 %), 핵과류 3건 중 2건(66.7 %)로 나타났음
- 검출된 농약종류는 Fludioxonil, Imazalil, Chlorpyrifos, Tebuconazole, Cyprodinil 등 14종으로 이 중 Fludioxonil이 19회로 가장 많았고 Imazalil 17회, Chlorpyrifos 12회, Tebuconazole 5회 순이었음
- 수입과일류에서 검출된 잔류농약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% ADI 값이 0.00002 ~ 0.46515 %로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었음

IV 정책연계방안

-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관한 근거 제공

V 활용계획

- 위해성 평가와 관련하여 수입 과일의 잔류농약 검출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진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